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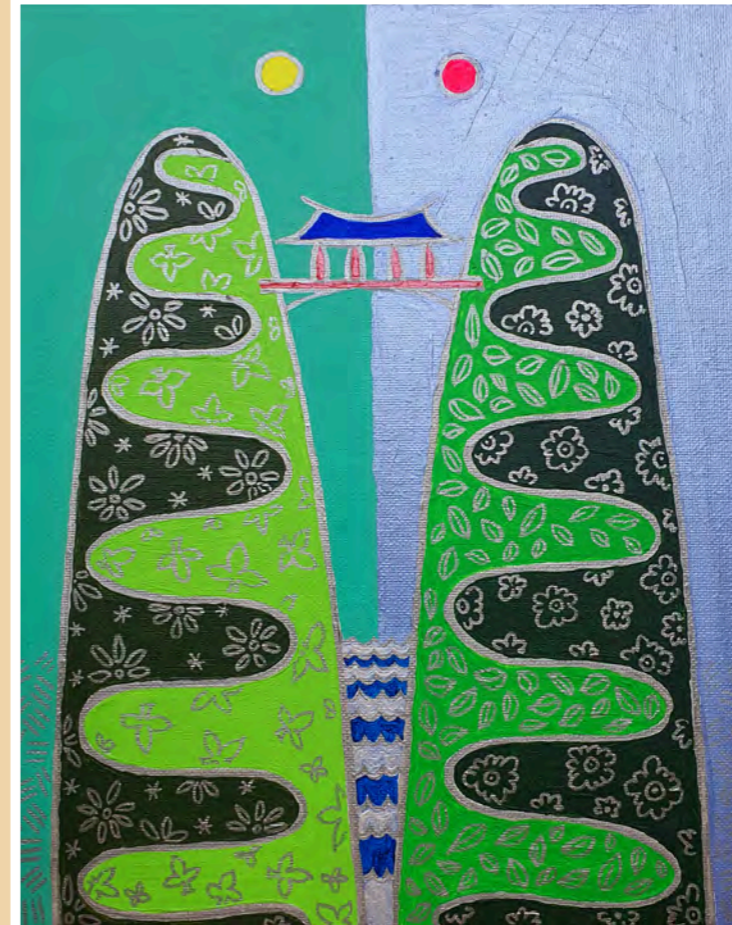
문화예술 속

# 교량의 미학

문학 (시, 수필, 소설) · 미술 (회화, 조소, 공예, 영상) · 공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문지영 | 작가  
외고, 예술학박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서로는 ■내려놓기(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공저,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3쇄+2판3쇄,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2020년 공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생각을 말해봐(2015년 공저)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토목기술사의 비밀노트(2024년), ■토목, 인생, 무엇이 궁금해(2023년 초판, 2023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를 했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2023년 봄호부터 시작한 본 도로교통저널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연재에 이어, ■2024년 3월부터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속 토목구조물의 미학〉을 매달 기고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산책〉 제목으로 연재를 진행 중이다.



# 제7편 누다리

2024년 가을호



누다리(누교; 樓橋)는 지붕(Roof, 덮개; Covered)이 있는 다리이다. 교량 상부가 오픈된 구조(Open Space)가 아닌 덮개(지붕, Roof, Covered)로 인해 시야가 부분적으로 차폐(遮蔽)된 구조물이며, 교면(橋面, 교량 상판; Bridge Floor/ Deck) 위로 잠시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공간(앉을 수 있는 좌석) 혹은 규모에 따라서는 상점 외로 쓰일 수 있는 룸(Room, 소규모 공간)이 구성되기도 한 특별한 장소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소통, 대화, 교감 및 공감이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점이 입점한 누다리라면 상행위까지도 일어난다. 실례로는 폰테 베키오(Ponte Vecchio, Italy)가 대표적이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다리는 보통 통과(通過), 이곳과 저곳의 연결(連結)을 위한 구조물로 가설된다. 물론 누다리도 이들 목적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타 다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면 상부의 (지붕)구조물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밀폐(密閉), 차폐(遮蔽), 은폐(隱閉)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누다리 교면 위에서는 머무름(stay)이 가능하다.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정지(停止)된 시점(視點)에서 느긋하게 바라보는 풍경 감상도 매력적이겠고,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풍경, 경관)과의 조용한 거리두기를 통해 마음의 정화(正化)가 저절로 일어나는 명상(冥想)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다리 위에서 서 있는 나는 교량 속 은밀한 그곳에 숨겨져(은폐; 隱閉)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곳에서 주변 경관(景觀)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평화(平和) 그 자체이다. 비나 눈이 오면 잠시 피해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도 기능을 한다. 소나기가 내리는 한때, 누다리 위에서 비를 피해 봄은 어떠한가? 불타는 햇빛을 막아주는 누다리 위에서 살랑살랑 부채질하며 숨을 돌려봄은 어떠한지? 혹시 인연(因緣)의 그 님과 조우(遭遇)하게 될지도?

[표 1] 장방형 교면의 누교 구조형태 및 비례

교면	교면의 누교 구조형태	교면의 비례
금강각교		$a:b = 1:1.8$ 3 x 1
수원성 화홍교		$a:b = 1:1.3$ 3 x 1
삼청교		$a:b = 1:1.4$ $c:b = 1:1.5$ 4 x 1
청량각누교		$a:b = 1:4$ 4 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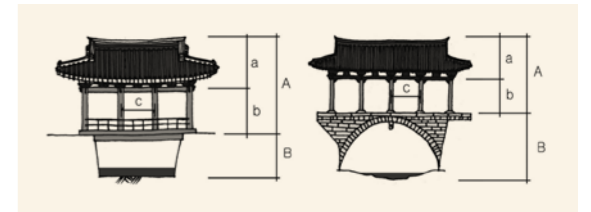
(출처: 문지영,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p.59)

옛 사찰에 가면 초입 혹은 대웅전 입구에 계류(溪流)가 있고 이 물줄기 위로 다리가 놓였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사찰 앞 혹은 대웅전 앞 계류는 '탐욕, 번뇌, 어리석음'에 물든 속세인(俗世人)의 독을 씻어 흐르는 물줄기 속에 함께 흘러 보내라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이 계류 위에 놓인 다리는 보통 무지개다리(홍교; 虹橋, 홍예교; 虹蜺橋, 아치교; Arch Bridge)인데(보다리 형태로도 존재했다), 송광사(松廣寺) 삼청교(三淸橋) 석재 아치(Arch) 위에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누다리로 만들었다. 부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대표적인 다리이며 장소이다.

필자가 저술한 단행본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59~67페이지에 기록한 내용을 부분 공유한다. 조선시대의 누다리 구조는 ① 하부(下部) 교량(橋梁, 다리)과 상부(上部) 누각(樓閣)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하(上下) 분리형(分離形) 누다리와 ② 누각이 교량을 겸하는 일체형(一體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량(다리) 형식으로는 상부 누각과 하부 형교(판교, 보다리) 혹은 아치교(홍교, 무지개다리)로 구성된다. 교축방향(橋軸方向, 보행자 이동 방향)으로 보면 상부 누각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축직각방향(橋軸直角方向, 수로에서 본 방향으로 보면 2개(x2=4개), 3개(x2=6개), 4개(x2=8개), 5개(x2=10개)의 기둥으로 건축되었다(표1). 장방형(長方形) 교면의 누교 구조형태 및 비례(比例)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금강각교(錦浪閣橋), 수원성 화홍교(水原城 華虹橋), 삼청교(三淸橋), 수홍루(垂虹樓)다리, 청량각누교(淸涼閣樓橋)의 교축직각방향에서의 비례는 <그림1>, <표2>를 참고하시라.

교면을 중심으로 보면 상부 누각이 하부 교량 혹은 다리 아래의 수공간(水空間)보다 시각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붕이 차지하는 시각적인 비중이 크다. 따라서 중·원경에서 보면 다리가 아닌 건축물로 인지될지도 모른다. 누교 교면 형태의 패턴(pattern)은 다양했는데 <그림2>에 단순한 형태로 그려보았다.

[그림 1] 누교의 교축직각방향 비례분석 구분도



(출처: 문지영,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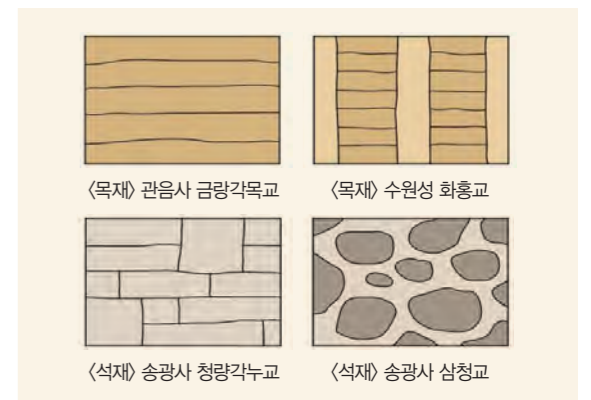
[표 2] 누교의 교축직각방향 비례

교량명	비례		
	상부누각:하부교량 (형하공간) (A) : (B)	누각의 지붕높이: 기둥높이 (a) : (b)	누각기둥 한 칸 폭: 기둥높이 (c) : (d)
금강각교	1 : 0.45	1 : 1	1 : 1.25
수원성 화홍교	1 : 0.50	1 : 1	1 : 1.00
삼청교	1 : 0.63	1 : 1	1 : 1.20
수홍루다리	1 : 0.68	1 : 1	1 : 1.00
청량각누교	1 : 0.59	1 : 1	1 : 1.28

(출처: 문지영,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p.60)

누다리와 유사한 다리로 행랑교(行廊橋), 행각교(行閣橋)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지붕 덮인 다리이며, 긴 연장(延長)으로 가설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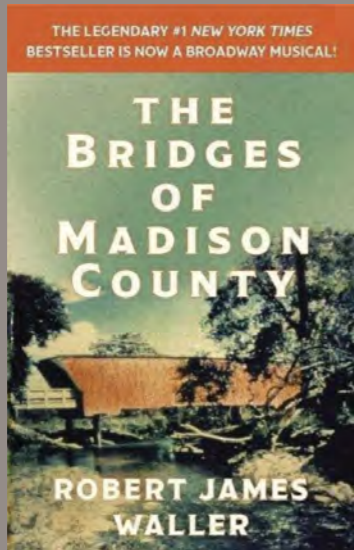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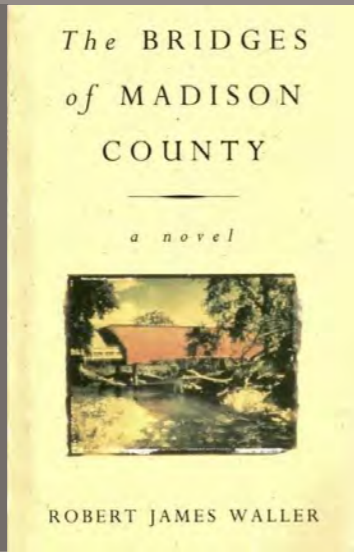
[그림 2] 누교의 교면형태 패턴



(출처: 문지영,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p.67)



소설(1992년)(사진1, 사진2)과 영화(1995년)(사진3, 사진4, 사진5)로 유명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The Bridge of Madison County)》에도 누다리가 등장한다. 메릴 스트립(프란체스카 존슨 役), 클린트 이스트우드(로버트 킨케이드 役)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속 매디슨 카운티의 '로즈먼 다리(Roseman Bridge, 영화 속 누다리)'는 프란체스카와 로버트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사진1〉, 〈사진2〉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소설책 표지



〈사진3〉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화 포스터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거요.”**  
- 로버트 킨케이드 왈 -

**“평생 가족에게 충실했으니,  
죽어서는 로버트를 택하겠다.”**  
- 프란체스카 존슨의 유서 -

남편을 먼저 여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던 프란체스카 존슨은 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한다. 그녀는 본인이 죽으면 화장해서 로즈먼 다리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녀를 가족무덤에 모시고자 준비한 남은 가족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유언이었지만 고인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숨겨온 과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나흘간의 해프닝이 유언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 로버트 킨케이드는 사진작가이다. 어느 날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잡지에 실을 다리(로즈먼 누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 매디슨 카운티에 도착했다. 길을 잃은 그는 잘 정돈된 한 농가 앞에 트럭을 세우고는 여자 주인공 프란체스카 존슨에게 길을 묻는다. 남편과 두 아이가 나흘 동안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혼자 있던 그녀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게 되고...

애타는 현장에는 '누다리(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등장한다. 사랑의 매개체, 중매쟁이 다리이다. 나무로 만든 터널을 갖춘 매디슨 카운티의 누다리 안에서 그녀는 다리 사진을 찍는 그를 숨어서 조용히 관찰한다. 경계심과 호기심 사이를 오가면서 그 둘은 자석의 양극과 음극처럼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적인 거리까지 좁히게 되었다. 이끌림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랜만에 옛 영화 한 편 감상해 보심은 어떠신지.



〈사진4〉, 〈사진5〉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화 속 교량 위에서의 한 장면(출처: 네이버 영화)



75세부터 101세까지 꾸준히 작가 활동을 한 모시스 할머니 (Grandma Moses; Anna Mary Robertson, 1860~1961)의 작품 속에는 '다리'가 자주 등장한다. 마을의 추억을 떠올릴 때면 어김없이 다리가 떠오른다고 하며, 보다리, 누다리 외 여러 형태와 크기의 다리를 여러 작품 곳곳에 그려 넣었다. <지붕 덮인 다리>(그림3)는 1940년경에 털실로 제작했다. 누다리 진·출입부, 교축방향으로의 교량 상부 구조물 지붕 상단에 1818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저 다리는 1818년에 가설이 되었나 보다.

모시스 할머니의 다른 작품들 <강 건너 할머니 댁으로>(그림4), <마지막 짐(The Last Load)>(그림5), <봄날(Spring Time)>(그림6) 작품에도 누다리를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다.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벽화가였던 존 엘리엇(John Elliott, 1858~1925)의 <지붕 있는 다리>(그림7)는 온화하고 화사한 연녹색 푸르름이 가득한 자연(自然)의 배경 속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인공(人工)의 누다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평화로운 풍경화(風景畵) 작품이다. 녹색과 붉은색의 보색대비(補色對比)<sup>1)</sup>를 주었으나 생각보다 강렬하지는 않다. 오일파스텔 재료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오묘한 색의 조화를 통해 누다리의 강조(強調)보다는 자연과 다리의 조화(調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1797~1858)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키요에(浮世繪)<sup>2)</sup> 화가이다. 그의 작품에서 다리는 주요 소재로 다뤄지며, 근경에서부터 원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위치, 구도로 표현되었다. 『명소에도백경(名所江戸百景)<sup>3)</sup>』의 <아타고시타(愛宕下)의 아부소로(藪小路)>(그림8) 작품에 그려진, 화면의 중경(中景)에 위치한 다리는 삼각 지붕을 갖춘 누다리이다. 주변의 삼각 지붕 건축물과도 조화롭다.



<그림 3> 『지붕 덮인 다리』, 모시스 할머니, 털실 그림, 1940년경



<그림 4> 『강 건너 할머니 댁으로』, 모시스 할머니, 1945년



<그림 5> 『마지막 짐』, 모시스 할머니, 나무에 템페라, 46x61cm, 모시스할머니재단



<그림 6> 『봄날』, 모시스 할머니, 메이소나이트에 유채, 46x60cm, 모시스할머니재단



<그림 7> 『지붕 있는 다리』, 존 엘리엇,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1345년에 가설된 폰테 베키오(베키오 다리, Ponte Vecchio, Italy)는 교면 위에 가게로 이용된 작은 공간이 밀집해 있다. 원래는 푸줏간 가게가 주로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는 보석상, 미술품 거래상, 선물판매소가 들어섰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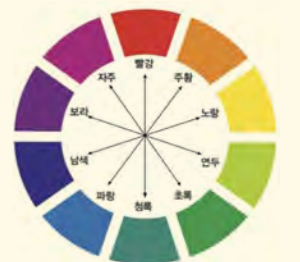


<그림 9> 폰테 베키오 스케치 (출처: <https://hughs-sketchbookblog.com>)



<그림 8> 우타가와 히로시게, 『명소에도백경』, <아타고시타의 아부소로>, 1857

- 1) 보색대비(補色對比)란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색상끼리 배색되었을 때 얻어지는 조화이다. 먼셀의 10 색상환(色相環, Munsell Color Order System)에서 서로 마주 보는 색들이 보색 관계에 놓인 색들로, 각각의 색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빨강과 청록, 주황과 파랑, 노랑과 남색의 조합이 대표적인 보색대비이다. 1:1 지정 칼라(color)로만 지목하기보다는 빨간색 계열 vs. 초록색 계열처럼 근접한 유사색 군을 함께 지칭할 수도 있다.
- 2) 우키요에(浮世繪)란 에도시대(江戸時代) 일본에서 탄생한 일본의 전통 미술 형식의 하나이다. 우키요에는 다색 판화로 손쉽게 찍어내기 위해 색이 강렬했고 평면성이 강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높이 평가받아 유럽의 일본풍 유행을 이끌었다.
- 3)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의 『명소에도백경(名所江戸百景)』은 1858년 히로시게가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던 시리즈로 에도(江戸), 즉 지금 도쿄(東京) 지역의 유명한 지역 1백여 곳의 풍경을 제작한 작품 모음집이다.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여러 형태와 쓰임으로 누다리가 놓였다. 누다리를 통해 교면 위에서 혹은 다리 인접 공간에서 이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행태(行態)라거나 감정(感情)을 나열해 보겠다. 필자의 경험담과 상

상력을 동원하여 적었다. 너무 철학적인가? 누다리에서는 누구나 철학자. 사색가가 될 수 있다. 독자 여러분 또한 가능하다. 도전!!

누다리를 통해 교면 위에서 혹은 다리 인접 공간에서 이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행태(行態) 혹은 감정(感情) 키워드

단어(명사)

- (1) 지켜봄, 관망, 직관 / (2) 직감, 영감, 경이로움 / (3) 행복, 기쁨, 설렘, 사랑, 평화, 감사, 만족, 위로 / (4) 고독, 숨기, 은밀, 은둔, 은폐, 차폐 / (5) 고요, 한가, 한적, 한가로움 / (6) 대화, 담소, 소통, 공감 / (7) 느낌, 멈춤 / (8) 유연함, 균형 / (9) 기다림 / (10) 자연동화, 자연 친화, 몰아일체, 자연화 / (11) 안구 정화 / (12) 머무름, 쉼, 휴식, 쉼표 / (13) 안전, 안심, 안식처, 안락, 편안함, 안정 / (14) 집중, 명상, 사색, 깨달음 / (15) 내려놓기, 비워내기, 비움, 무념무상, 득도 / (16) 자유, 여유 / (17) 소박함, 소확행 / (18) 그늘 제공, 햇빛 피함, 눈비 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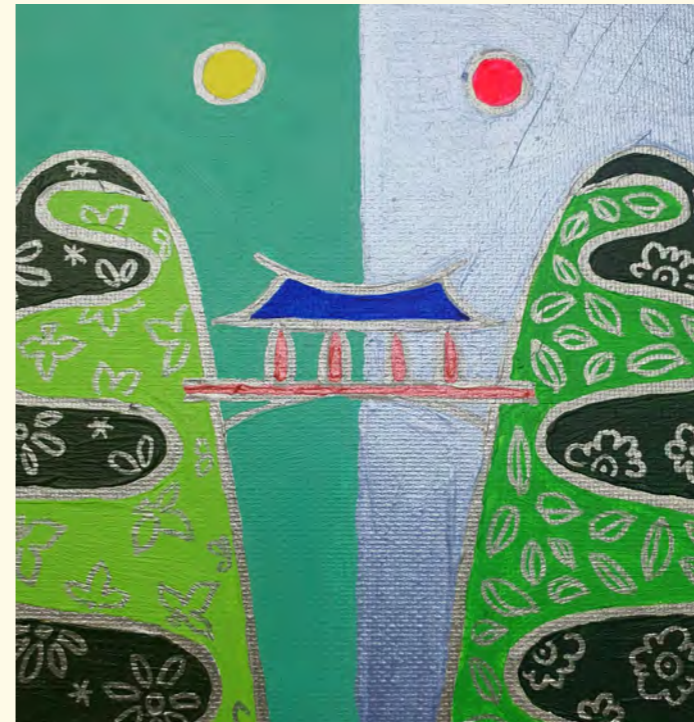
누다리를 통해 교면 위에서 혹은 다리 인접 공간에서 이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행태(行態) 혹은 감정(感情)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문장(동사, 형용사 포함)

- (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 (2) 온전한 나로 깨어있음을 즐긴다 / (3) 몸과 마음이 편하다 / (4) 근심, 걱정을 잊다 / (5) 자연을 즐긴다 / (6)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린다 / (7) 한가로이 거닐다 / (8) 조용히 앉아있음을 즐긴다 / (9) 바랄 것이 없다 / (10) 스스로 즐긴다 / (11)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다 / (12) 거북이처럼 살다 / (13) 속도를 늦추다 / (14) 사색의 공간을 갖다 / (15) 절경을 즐긴다 / (16) 한껏 즐긴다 / (17) 즐거움을 추구하다 / (18) 자연에 맡긴다 / (19) 탐욕을 버리고 만족한다 / (20) 동요되지 않는다 / (21) 욕심을 줄인다 / (22)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 (23) 마음을 편안히 다스린다 / (24) 조용하고 여유롭다 / (25) 내면의 깊이가 중요하다 / (26) 가끔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하다 / (27) 쉬게하라 / (28) 홀로 고요하게 하라 / (29)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 / (30) 투명한 침묵이 있다 / (31) 깨어있는 고요를 느끼다 / (32)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33) 나를 자유롭게 하다 / (34) 짐작을 내려놓으면 행복이 온다 / (35) 내 안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본다 / (36)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 (37)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나이다 / (38) 내 마음의 진정성을 알다 / (39)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다 / (40) 깨어있는 삶을 살다



〈그림 10〉『일월이봉(日月二峰)과 누다리(樓橋)』\_부분1 (©문지영 작품)



〈그림 11〉『일월이봉(日月二峰)과 누다리(樓橋)』\_부분2 (©문지영 작품)

오늘은 다양한 쓰임이 있는 누다리에 대해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가까운 일본, 중국에 가면 고정원(古庭園) 내 혹은 사찰(절)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누다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쑤저우(蘇州; 소주)와 광저우(廣州; 광주), 일본의 교토(京都)에 있는 전통(傳統) 누다리 감상을 추천한다. 필자는 두 나라의 누교를 직접 본 적이 있다. 경험에 의한 추천이니 믿어보시길. 우리나라의 옛 누교를 방문하고 싶은 독자분들께서는 필자의 단행본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에서 언급한 누다리가 있는 장소를 다녀오셔도 좋다. 한·중·일 세 나라의 옛 누다리를 비교해 보는 경험도 의미 깊을 것이다. 특히 누다리 지붕의 형태에서 재미를 찾아보시길. 🇰🇷🇨🇳